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통일Focus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향후 추진전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일 • 대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7일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프로세스 초기 정착에 성공, 제도화 과정에서 국내적 지지 더 필요해

⊙ 유호열 고려대 교수(사회)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해외 저널에 기고했던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은 지난 8월 22일 통일부장관이 관련 책자의 발간 사실을 소개하면서 설명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학술회의를 비롯한 국내외의 세미나를 통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과 정부에서 공식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시
2013년 11월 7일(목) 14:00~16:00

▶장소
민주평통사무처 회의실

▶좌담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

⊙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북관계에서 보여준 몇 가지 입장과 행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성공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을 당시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잠정적인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과거에는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아니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둘 중의 하나였죠.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충분히 견지하면서도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를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이제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개성공단이 자기들의 시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이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당장의 성과를 논하기 보다는 방향성을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처음 제안된 배경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진전과 후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퇴를 반복하면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진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이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압박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무시라든지 하는 수단을 중시했는데, 신뢰프로세스에서는 수단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인프라를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떠한 하나의 고정된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경하게 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안보를 강조할 수도 있고 교류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고착된 수단이나 단계를 정하기 보다는 각각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자는 것

⊙ **이정훈 연세대 교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남북관계의 정상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인 관계였다고 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고,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도 있었습니다. 문화교류도 이루어졌고 인도적 지원도 상당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들이 진행된 만큼 남북관계에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관계에서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이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된 점을 시인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Focus

저는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 밖에 안된 상황에서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프로세스인 만큼 긴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고 앞으로도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화려하거나 결과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뢰프로세스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곧바로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원칙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에 추진됐던 대북정책의 정반합의 결과물입니다. 강경 노선도 취해 보았고 온건한 노선도 취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장점만을 뽑아낸 결과물이 신뢰프로세스입니다.

신뢰프로세스는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신뢰 구축과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신뢰 구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남북관계는 정체 상태에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시기적으로 신뢰프로세스가 정착되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겠지만 과거의 대북정책과 비교해보면 대내적인 논란이 상대적으로 최소화되었다고 봅니다. 또 과거의 대북정책보다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뢰프로세스가 가치 중심적 접근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이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권 초기의 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뿌리를 내리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초기 정착에 성공한 신뢰프로세스가 제도화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지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내용은 과거 관행시 되었던 북한 행동의 일탈성을 제거하는 노력과 발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관계를 후퇴하지 않는 관계로 지속가능하게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상시 대화라고 봅니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

⊙ **유호열** 이번에는 비록 8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대내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활발했는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주변국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성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현저하게 줄어

⊙ **최진욱**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정책에 반대로 하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남정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국제공조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통합을 이루고 국제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취임 6개월 때의 MBC 여론조사를 보면,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77%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대북정책 지지도가 전반적인 국정지지도 65% 보다 12%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과거의 조사에서는 국정지지도와 대북정책 지지도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진보와 보수, 여야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북정책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전 정부와의 인위적인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일관되게 지켜가지만,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하는 대북정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냈다고 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화려하거나 결과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뢰프로세스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고, 또 어느 때는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 · 미동맹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EU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도 지지를 얻어낸 8개월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많은 정상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EU를 비롯하여 아세안 여러 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로부터는 동시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국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 정부가 신

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지와 주변 4강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고요.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는 북한이 정권 출범 초기에 도발과 거친 행동을 보인 가운데서도 정부가 원칙있는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게 된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바로 실질적인 예가 되었다고 봅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북한의 도발과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격적인 도발과 행동에 대해 정부가 휩쓸리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국면을 관리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 · 중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 얻고있어

⊙ **박인휘** 박근혜 정부 첫 해를 보내면서 거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북한의 도발과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격적인 도발과 행동에 대해 정부가 휩쓸리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국면을 관리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추진원칙인 균형정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를 강조해야 될 때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할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일관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국정기조의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세움으로써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황재호**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동의합니다. 남남갈등을 야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70%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과 원칙에 대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8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과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북한의 새로운 시도에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 하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생명력을 지속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 저는 국내적으로 위기 관리와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돌이켜 보면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례없는 도발행위를 보였습니다.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위기 관리와 메시지 관리를 아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그 시기에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통일로 가는데 있어 필요한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뭐니뭐니해도 중국과 북한문제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국과 한반도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 등 동맹국가와는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논의했지만, 중국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한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것 뿐

중국과 북한문제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국과 한반도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 **유호열** 전반적으로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적인 지지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시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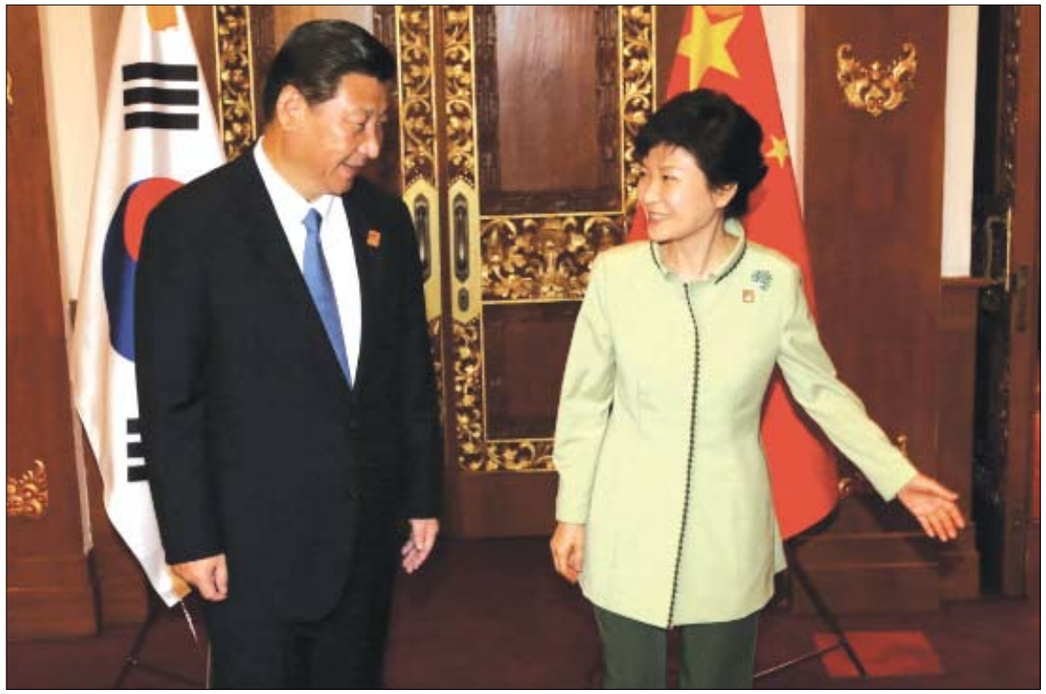
특히, 과거에는 복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중국으로부터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통일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점이 새로운 성과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북한의 입장이나 북한이 처한 상황이 더욱 고립되고 폐쇄적인 상황이 되어서 체제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극심한 위협과 협박, 비방과 비난을 하면서도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보였던 전통적인 북한의 전략이기는 하지만, 이런 북한의 동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 되었습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개성공단을 시찰하게 되는 상황으로 다시 진전이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금강산관광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북한의 의도와 대남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를 운운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을 보고,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과거에 했던 관행처럼 우리 정부를 건드려 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 완전한 폐쇄 수순을 밟아갔을 때, 북한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 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장으로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출처 : 청와대〉

그래서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협상모드로 들어선 것이고, 그 이후 도발 위협이나 강경한 발언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금강산관광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과거의 연평도 사건과 같은 도발을 함부로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과정이 신뢰프로세스이고,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라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금강산관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화 국면의 모멘텀을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와 연계하여 정치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 대화전략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있어

⊙ **박인휘** 북한 행동의 불가 예측성, 극단성은 과거에도 그래왔던 일종의 패턴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한 외교적인 스페이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항상 극단적 행태를 보여 왔고, 올해도 그랬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향후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거나 대외관계에서 일탈성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년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일탈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일탈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패턴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북한이 어떤 속셈에서 다시 대화국면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이후 북한이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 혹은 우리의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이룬 결과이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위기와 도발이 아니라 대화라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볼 때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화 국면의 모멘텀을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은 올해를 계기로 해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들어서게 되었고, 굉장히 의미있는 전환국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은 국제화의 길을 통해서든, 혹은 위기를 제거하는 제도화를 통해서든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국을 위협하는 그런 도발을 할 수 없는 과정으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유호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변화,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나온 것은 중국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 중국에 가고, 또 중국에서 북한에 누군가가 왔다가면, 북한 정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외교도 일정한 부분에 있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연관관계와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황 교수님?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평화를 묻는다'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 중 평화통일포럼

⊙ **황재호** 앞에서 북한의 일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쪽에서는 북한의 일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이버공격, NLL지역의 도발 등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6자회담과 관련이 있겠지만 북한을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어떤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중관계는 한중관계대로 가면서 북중관계는 북중관계대로 가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신뢰프로세스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입장을 많이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문가그룹 내에서는 한국이 신뢰프로세스의 양 축인 튼튼한 안보와 지속적인 대화 중에서, 지속적인 대화 무드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이후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미국 하버드대 힐레스도서관에서 개최된
보스턴 한반도 평화통일포럼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 **유호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무마를 하든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군요. 그리고 한·중간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격상되고 밀접해지면서 한국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어쨌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 **이정훈** 제가 앞에서 개성공단문제에서 우리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핵이나 미사일은 별도의 문제로 취급해야겠지요.

⊙ **이석**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도 그렇고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뿐 아니라 지난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 시진핑 체제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그것이 압박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난 2월부터 비제도적 행정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사람들의 비자 컨트롤을 강화하고, 세관의 통관업무를 통제하고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 초기인 한국을 밀어붙여 보았는데, 이것도 먹히지 않은 것이죠.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폐쇄를 들고 나왔지만,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에 막혀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개성공단 재가동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한국을 협박해도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과의 사정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고.

북한은 당분간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몇 개월 동안은 이런 갑갑한 국제환경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으로 갈지, 또 다른 도발을 벌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대북정책도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이 국제문제와 맞물려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 **북한 정부에는 돈이 없고 주민들에게 있는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 **유호열** 북한경제는 어떤가요? 지금 북한에 돈이 좀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돈이 없어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래서 남북관계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배짱을 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어떤가요?

북한 정부는 쪼들리고, 주민들은 상당한 자금 보유하고 있어

⊙ **이석** 두 가지 분석이 모두 맞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는 돈이 없어 쪼들리는 반면, 북한 주민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5년 동안에 외부에서 많은 자금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남북교역을 비롯한 북한의 대외무역이 크게 늘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우리에게서 다른 형태로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24조치 이후 상황이 나빠졌고, 그래서 북한 정부는 돈이 없어 쪼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주민들은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경제의 각 분야에서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줍니다. 이들 돈주의 활동은 시장에서뿐 아니라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부문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으려 하지만, 과거처럼 그냥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빼앗지는 못하니까 경제적 메카니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핸드폰을 100달러에 수입해서 북한주민들에게 200달러 또는 300달러에 팔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핸드폰 하나당 100달러에서 200달러의 경제적 지대가 창출됩니다. 이러한 지대를 북한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는 것입니다.

각종 건설사업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정부가 짓는 아파트를 혁명열사 같은 특정계층에게 분양한다고 할 때, 이들은 북한정부로부터 받은 아파트를 다시 시장에 내다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한 채당 몇 만 달러의 지대가 창출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도 핸드폰처럼 이러한 지대를 북한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점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적 메카니즘을 이용해서 북한당국이 주민들이 보유한 달러를 환수하

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즉, 북한 정부에는 돈이 없고 주민들에게 있는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요즘 평양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각종 소비재의 소비가 왕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돈이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부가 돈에 쪼들리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은 경제문제였는데, 점차 정치문제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과 테크노크라트와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화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인휘** 주민들에게 돈이 많이 있다는데, 현금자산은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요?

⊙ **이석** 옛날에는 장판에 깔고 보관하거나 남이 모르는 곳에 숨겼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것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들려오

는 소식은 '돈주'들을 중심으로 대부업이 발달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주민들은 이들 돈주들과 연결되어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빌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자산의 보유가 이들 돈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돈주들의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 내부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것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일반주민들(기업인 포함)과 돈주의 체계적인 커넥션이 있고, 이것이 중국과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인휘** 일종의 사금융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군요.

⊙ **이석** 북한사회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통제를 해도 통제가 잘 안됩니다. 과거 김정일 정권에서는 주민들의 돈을 직접 빼앗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돈벌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호열** 북한주민에게는 현금이 있고 북한정부에는 현금이 없는 이런 상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잡게 된 것이 큰 성과

⊙ **최진욱** 북한은 핵과 경제 병진정책을 내세우면서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도발을 했는데, 중국 때문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 협조관계를 잘했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은 핵병진노선을 인정받기 위해 강한 도발을 하기도 하고, 평화공세를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권은 북한이 쥐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들어주고, 또 평화공세를 펴면 호응해 주고 그랬는데,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와 재가동 과정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프로세스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당분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워낙 강경하게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지 도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테러도 같은 유형의 도발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그들이 원하는 핵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도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 면을 볼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군요. 그런데 금강산관광문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잖아요? 북한이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을 보일까요? 이산가족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최진욱** 이것은 새로운 양상인데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문제를 논의하자고 하고서는 갑자기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관광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과 이산가족, 그리고 금강산관광문제를 패키지로 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성공단문제와 이산가족, 금강산관광문제를 별개로 풀어가자고 제안하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받아주고 금강산관광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하려 했었는데,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 · 러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금강산관광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봅니다. 5.24문제도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도 그렇고, 다른 장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북한의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잘 안되면 도발 위협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 **유호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상황도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문제라든지 동북아 평화체제 문제, 한 · 미관계와 한 · 중관계 등 통일환경, 그리고 남북관계와 북한정세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몇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진전략이 필요한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의지를 갖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과 유러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합니다.

⊙ **박인휘** 신뢰프로세스의 초기 정착은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계시고, 대내적으로도 불필요한 논쟁을 제거하고 있고, 국제공조체제도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갑자기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든지 갑자기 체제를 개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북한이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응하게 만들고, 우리가 내미는 것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잡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북한을 궁극적으로

교류를 위한 의미있는 제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북한에게 우리가 내미는 손과 우리가 제기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신뢰프로세스 2단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정착에 나름대로 성공한 신뢰프로세스를 위해서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인도적인 문제와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다시한번 제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류를 위한 의미있는 제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북한에게 우리가 내미는 손과 우리가 제기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신로프로세스 2단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초기 단계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이산가족문제를 다시 한번 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러한 인도적인 교류와 논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사 파견문제는 조금은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신뢰프로세스는 느리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

⊙ **황재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대치를 많이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적 측면에서 너무 화려하거나 환상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적당한 기대치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5년 동안에 뭔가 결과를 만든다기 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듯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쌓아가는 벽돌 한 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지는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아주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유호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한반도 평화통일과 러시아'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5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 · 러 평화통일포럼

신뢰프로세스 추진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 **이석** 저는 인도주의적인 대북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프로세스는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북 지원 실적을 가시적으로 함으로써 중국에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인권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5.24조치 등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TSR이든, TCR이든, 그리고 가스관 문제는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당연하죠.

대북 투자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핵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선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적당한 시기를 고려하여 북한에 새로운 차원의 대화를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시장경제 개혁 등 북한주민들의 삶을 위한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도와줄 용의가 확고하다는 것이라든지. 이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임기 중반이 넘어가면 효과도 크지 않고, 또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대치를 많이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적으로 너무 화려하거나 환상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내실을 기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대북 대화 제의 필요성 있어

⊙ **유호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까요?

⊙ **박인휘** 전례 없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잘 잡았으니까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과제와 남북한 간의 과제, 국제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과제에 치우친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각각의 과제를 균형있게 풀어가야 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통일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국민들과의 면대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범국민적 조직인 민주평통이 해야 합니다. 해외에도 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평통이 국제적인 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요. 그런데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인식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자문위원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향성과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진욱** 한반도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잘 되고 있는데, 미 · 중관계와 중 · 일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북한이 그것을 악용하고 갈등 분위기를 고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분단 상황을 자각하게 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국내, 그리고 북한에게 알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한 · 미 · 일 6자회담 대표들이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협력의 고리도 만들어야 하고, 한 · 미 · 일관계가 잘 되어야 한중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관계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잘 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 **유호열** DMZ세계평화공원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최진욱**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은 신뢰프로세스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은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단 상황을 자각하게 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국내, 그리고 북한에게 알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DMZ세계평화공원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DMZ세계평화공원 추진을 통해서 유엔의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비롯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 유럽, 그리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지지 속에 추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8개월은 그런 지지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국내적인 공감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평통은 그동안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담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지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해외에서는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60주년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내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베이징에서 한중평화통일포럼을 열었고, 4월과 10월에는 한미포럼과 한러포럼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주요국가의 지지를 얻어내고 이해를 확신했습니다. 곧이어 한영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역할을 해왔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평통의 이런 정책네트워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1.5트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제포럼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을 늘려서 민주평통의 1.5트랙 활동 뿐 아니라 트랙2를 통해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일연구원에서도 민간 차원의 포럼을 하기도 했지만,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이 거주하는 주류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주평통의 활동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이정훈** 신뢰프로세스를 어떻게 추진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저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과주의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남북교류에 있어 신뢰는 전혀 구축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진행 하다보니까 그 이벤트만 끝나면 아무런 진전이 없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성과를 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레벨, 신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덱스(index)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신뢰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종의 신뢰인덱스에 기반을 둔 맞춤형 교류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합리적인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다리 올라가듯 발전해 갈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로드맵의 최종 목표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 index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DMZ세계평화공원이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참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호열**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외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 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NLL문제를 비롯한 여러 상황들이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일정 정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남남갈등이 약화되고,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앞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통일인프라 구축해야

⊙ **황재호**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국민들이 전보다 통일에 관심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이나 의지를 제고하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평통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이 거주국 정부를 비롯해서 현지 언론, 전문가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해야 합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고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호열** 제가 민주평통 중국지역 행사에 참석했는데, 많은 자문위원들이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현지 분위기가 좋아졌고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참으로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욱 통일활동에 의욕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분은 그런 분위기가 좋아 개인 사비를 들여 중국어로 번역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을 사서 거래처에 주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면서, 사업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한중관계가 좋아지고 대통령이 왔다가니까 현지 분위기나 반응이 좋아지게 되고 자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교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해외 자문위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이해시키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이 그동안 통일을 위해 많은 활동을 벌여왔는데, 그동안의 활동과 더불어 통일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통일프로젝트를 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 민주평통이 그동안 통일을 위해 많은 활동을 벌여왔는데, 그동안의 활동과 더불어 통일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통일프로젝트를 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입니다. 산림녹화사업은 1~2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또는 30년 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거의 나무가 없거든요. 나무가 없는 만큼 물도 부족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 · 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통일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민주평통이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게 될 것이고요. 과거 우리도 현재의 북한과 유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산림녹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산림녹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과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민주평통의 국내 자문위원도 가능하지만, 해외 자문위원들을 활용하면 더욱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호열** 예.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산림녹화사업. 그리고 해외 자문위원이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자문위원들은 북한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진욱**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고 우리 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통일이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흡한 통일교육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통일교육은 통일부나 교육부 뿐 아니라 민주평통 등 '통일'에 연관된 모든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역사교육과 정체성 교육, 공동체 교육과 시민의식 교육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통일'이 국정기조에 포함된 것은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을 숨기지도 말고, 귀찮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통일이 항상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이 '통일'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통일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통일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민주평통이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평통이 주류사회에 통일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역할해야

⊙ **이정훈** 민주평통의 활동은 통일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8일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조제 마누엘바호주 EU집행위원장,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한·EU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

특히, 해외 민주평통은 대단히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활동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주국 주류사회에 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또는 중국이든 거주국 주요 인사들을 지한파와 친한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 자문위원의 역할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국익에 도움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ast Sea'인가? 'Sea of Japan'인가를 논의할 때 미국이나 영국의 지일파와 친일파를 활용하여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민주평통의 활동은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를 파고드는 더욱 포괄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주류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더 많이 더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열**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의장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게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들은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통일활동을 전개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통일Focus

표지설명 :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 상임위원과 통일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경대 수석부의장, 박찬봉 사무처장

이 자료집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지난 11월 7일 개최된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포커스 제5호

발행일 2013년 11월 26일
발행인 박찬봉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대변인실 02)2250-2265
제작처 이호기획 02)2274-1491

※이 자료집에 정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